

메이크업 이미지에 나타난 영화 패왕별희(霸王別姬)와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의 비교에 관한 연구

박장순*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부교수

A Comparative Study of The Movie Farewell My Concubine and Miss Korea Elected in 1989 in The Makeup Image

Jang-Soon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eauty Art, Song-Won University*

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외모 관리와 소비 행동은 개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생활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러한 외모 관리를 위하여 메이크업은 헤어미용, 네일미용, 피부미용, 패션 등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중요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영화<패왕별희>에 등장하는 우희와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의 눈썹, 눈, 아이라인, 볼, 입술화장, 피부톤 등의 메이크업에 관하여 미용학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소 과장된 화장기법의 공통분모 속에서 다른 면들이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참신한 메이크업 패턴과 아이템 개발을 위한 다각도 모색이 가능하며, 동시에 메이크업 미용 교육의 기틀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메이크업 시장에서의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인 발전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키워드 : 메이크업, 패왕별희, 미스코리아, 패턴 연구, 뷰티 시장

Abstract For modern people liv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ppearance management and consumption behavior are very important factors not only in personal values but also in human relationships. It is used as an important means of competitiveness with skin beauty and fashion. It is used as an important means. Therefore, we compared and analyzed professionally from the aesthetic point of view about the makeup of the eyebrows, eyes, eye line, cheeks, lip make-up, and skin tone of Woohee, who appeared in the movie <The King of the Stars> and Miss Korea in 1989. As a result of the study, other aspects were analyzed in the common denominator of a somewhat exaggerated makeup technique. Accordingly,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explore multiple angles for developing novel makeup patterns and items,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help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makeup beauty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practic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ness by building a more aggressive marketing strategy in the makeup market.

Key Words : Make-up, Farewell My Concubine, Miss Korea, Pattern Research, Beauty Market

1. 서론

흔히 ‘화장(化粧)’이라 불리는 메이크업(make up)은 본인 외모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자신의 얼굴이 지닌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자신 성격까지도 표현이 가능한 미용 분야 중 하나이다. 현대인의 외모 관리와 소비 행동에 대한 인

식 변화는 심리적 사회 가치와 타인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쉽게 받는다. 그러므로 외모 관리와 소비 행동은 개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타인(他人)과의 관계에서도 변수(變數)로 작용하면서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 더욱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더불어 자아(自我)의 개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외

*Corresponding Author : Jang-Soon Park(anima2929@hanmail.net)

모에 관한 긍지를 갖게 되어 열등감이나 심리적 위축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주고, 자신감을 한껏 높여 주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에도 도움을 준다[2].

이에 따라 메이크업은 헤어미용, 네일미용, 피부미용, 패션 등과 함께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형성에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고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문화로 정착되고 있다[3]. 이는 현대인에게 외모가 매우 강력한 경쟁력의 또 다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증(反證)이다[4].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메이크업은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들까지 보급되어 피부미용과 자신의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 일반화되었다[5]. 더욱 이상적인 외모 관리 행동을 다양하게 표출함으로써 현대인의 노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논하기 힘들 만큼 외모 관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가 남성들에게도 본인을 부각하는 중요 요소이자 경쟁력이며 빠른 정보원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6]. 따라서 미적(美的)인 욕구표현 수단이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전달하기 위한 외모 가꾸기에 남녀 모두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헤어미용, 화장품 및 패션 시장의 번성까지 불러오고 있다[7].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메이크업 패션 역시 하루가 다르게 유행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된 메이크업 시장에서의 우위(優位)를 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메이크업 패턴과 아이템(make up pattern and item) 개발은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현대적 감각의 메이크업과 다소 거리감은 존재하겠지만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일환(一環)과 선행연구[8]를 바탕으로 영화<패왕별희>에 등장하는 남성 주연인 우희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에 관한 심도 깊은 분석과 1989년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의 눈썹(eyebrow), 눈(eyeshadow), 아이라인(eye line), 볼(cheek), 입술(lip) 등의 메이크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참신한 뉴 모드(new mode)의 메이크업 패턴 및 아이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메이크업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더욱 실질적 발전에도 일조(一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영화<패왕별희>의 개요

<패왕별희(霸王別姬)>는 중국의 대표 문화이며 전통 예술인 경극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집약시킨 영화이다[9]. 또한 ‘상업영화’라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경극(京劇)’이라는 예술적 장르 특징이 가미된 형태의 작품이다. 경극은 노래, 연기, 춤이 다양하게 혼합된 중국의 전통적인 연극으로서 북이나 징을 중심으로 곡조(曲調)와 반주가 곁들인 대사와 함께 무용에 유사한 동작으로 구성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여성 배우가 단 한 명도 없이 모두 남성 배우들로만 출연진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는 청나라 당시에 유교적 전통으로 인하여 여성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을 불허(不許)했을 뿐 아니라 남녀가 같이 한 무대에서 연기하는 일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10]. 영화 <패왕별희>가 차용(借用)한 역사적 근거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1장에서 한다. 즉 진나라 말엽 초(楚)나라의 패왕(霸王)인 항우(項羽)와 유방과의 전쟁 이야기 및 항우와 그의 애첩인 우희(虞姬)와의 사랑 이야기가 주요 테마(theme)로 등장한다. 이러한 러브스토리과 함께 역사적 소재를 통해 당시 중국 사회상을 영화예술로 표현하고 있다[11].

영화<패왕별희>는 홍콩의 유명한 여류작가인 리비화(李碧華)의 소설 ‘패왕별희’를 루웨이(盧葦)와 함께 각색하였으며, 첸 카이거(Chen Kaige) 감독이 영상으로 옮겨 Fig. 1.과 같이 상업영화로 탄생시켰다. 원작은 표면상으로는 연애소설을 표방(標榜)하고 있다. 하지만 경극 배우 세 남녀 간의 운명적 사랑을 통하여 중국 인민공화국의 광기(狂氣)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공산당을 비판하려는 숨은 의도가 내재(內在)되어 있다. 반면 첸 카이거 감독의 영화<패왕별희>는 정치적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주인공들의 사랑에 포커스(focus)를 맞추어줌으로써 서구관객들의 취향과 정치적 기대에 의도적으로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12]. 영화<패왕별희>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에 반해 경극을 비롯한 학문적 접근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현재까지는 매우 드문 상태이다[13].



source

<https://blog.naver.com/72o813/220985603235>

Fig. 1. Chen Kaiger's film <Farewell My Concubine>

2.2 미스코리아(miss korea)의 태동(胎動)

한국에서 미인(美人)선발대회의 시초는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체계와 절차를 갖추지는 못 했지만 1931년 월간 <三千里(삼천리)> 5월호와 6월호의 후면에 실린 지면 광고가 최초의 미인 선발대회라 할 수 있다[14]. 세월이 흘러 1940년 일본 여성 잡지인 <모던 니뿐>에서는 '미스 조선'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1949년 월간 <신태양>은 후보자들의 사진 응모를 거쳐 예비심사를 한 후, 덕수궁 앞에 진열된 후보자의 사진들을 일반인에게 투표를 붙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인 '미스 대한(Miss 大韓) 인기투표'로 미인을 선발하였다[15]. 하지만 체계적이고 정식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미인대회는 1953년 5월에 개최된 '제1회 여성경연대회(女性競艷大會)'이다. 부산 중앙신문사가 주최한 이 미인대회는 예선 심사를 거친 다음 수영복 심사인 본선을 거쳤다. 비록 비공개로 미인대회 진행을 하였지만 당시 사회적 정서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서구적인 대회였다.

몇 년 동안 부산 중앙신문사가 주최하다가 1957년부터는 서울 한국일보사가 국제미인대회 본부사무국과 정식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새롭게 개최하기 시작한다[16]. 국제 미인대회의 참가를 전제로 하므로 미스코리아대회의 운영과 심사 선발의 기준은 당연히 애초부터 서구적일 수밖에 없었다[17]. 1957년 당시 한국은 6.25 동란(動亂) 직후였기 때문에 당장 끼니를 해결하고 국가를 재건(再建)하는 사업 외에는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창간 3주년을

앞둔 한국일보사는 피폐한 한국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세계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벤트(event)를 고민하다 '제1회 미스코리아선발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시작부터 성대하게 개최된 첫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기존의 가부장적(家父長的) 인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과감하고 파격적인 행사로서 단숨에 온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았다[18]. 제1회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서는 현대와 같이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이 아닌 160cm 전후의 통통하고 아담한 체형을 선호하였다. 미인대회 응모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고 28세 이하의 한국 국적을 지닌 미혼 여성으로서 지덕체(智德體)에 진선미(眞善美)를 두루 겸비한 여성이어야 했다. 그리고 직업 유무는 불문(不問)하지만, 흥행단체나 접객업소에 종사한 적이 전혀 없는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시의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세간의 뜨거운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전쟁 직후 힘들었던 시대적 상황에 있던 국민에게 잠시나마 시름을 잊으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축제의 장'이었다.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은 당대(當代) 한국의 여성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사회, 문화, 예술 등 여러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성대한 환호와 많은 군중 속에서 시가(市街)행진과 카퍼레이드(car parade)를 거쳤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사절로서 미스 유니버스대회(Miss universe contest)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의 영예를 얻게 된다. 이렇듯 대외적인 국제적 지위가 미약하던 1950년대 말엽 미스코리아는 각종 국제미인대회에 출전하면서 '코리아(KOREA)'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민간외교사절단의 활약과 소통의 창구로서 커다란 활약을 하였다.



source : <http://cafe.daum.net/pvv./8sH6/49?q=%EC%A0%9C1%ED%9A%8C+%EB%AF%B8%EC%8A%A4%EC%BD%94%EB%A6%AC%EC%95%84&re=1>

Fig. 2. 1st Miss Korea Contest Poster and Competition View (1957)

2.3 미스코리아(miss korea)의 변천사(變遷史)

1950년 민족상잔(民族相殘)의 6.25 동란으로 인해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도 강한 컬(curl)을 지닌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에서는 영화 <로마의 휴일> 속 주연배우인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의 인기로 인하여 ‘헵번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sensation)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부팡 스타일의 바깥 마름(out curl)과 콜드 퍼머넌트도 대유행하였다 [19].

1957년 제1회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후보 여성들은 유명 미용실(beauty shop)을 직접 내방(來訪)하여 사진 면접을 보았다. 일류 미용실 원장은 미용실 뒤편에서 푸른색 수영복을 후보 여성에게 직접 입혀 본 뒤 체크를 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균형과 각선미, 뚜렷한 이목구비 등을 면밀하게 살펴 보았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지적(知的)인 이미지를 심사한 다음 합격선을 통과하면 해당 후보예정자 여성에게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워킹, 포즈 등 걸쳐 전체적인 고강도 트레이닝(training)을 시켰다.

한국일보사 주관의 초창기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 지상파 TV로 중계되면서 위상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대표하는 미

인대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단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매년 개최되는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2000년대 이후 여성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대회의 위상은 현격히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시도(市都) 각 지역의 예선을 통과한 진선미(眞善美)의 본선 진출자들은 전국대회 규모로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한국 국적의 고졸 이상의 학력과 출산한 적이 없는 미혼여성이 대회참가의 자격 조건이다. 참가자들 연령대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신장도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커졌다. 초창기 대회의 출전자들은 전통한복, 수영복, 양장이 고루 혼재(婚材)된 의상을 입고 심사를 받았던 반면 현재는 기존의 수영복, 한복, 정장 의상에 드레스까지 추가되어 더욱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심사과정 을 거쳐서 미스코리아로 탄생하게 된다.



source : [15] Influences of Miss Korea on Women's Aesthetic Consciousness.

Fig. 3. Miss Korea winners by period

3. 영화<패왕별희> 우희((虞姬)와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의 메이크업 비교

3.1 피부화장(Skin make up)

영화<패왕별희>의 우희 역을 담당한 주연배우인 장국영(鄧國英)은 변김(變臉)에 등장하는 마치 마술 가면과 같이 사람의 혈색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백색의 피부 톤(skin tone)으로 화장을 하였다. 여장(女裝)을 통해 초패왕 항우와의 이룰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려면 남성스러운 얼굴 골격을 감추고 더욱 여성스럽게 화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한 연약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백색의 피부화장이 연출되었으리라 판단된다.

1989년 미스코리아 진(眞)과 선(善) 당선자의 피부 화장을 보면 선행연구[16]와 동일 결과가 나타났다. 이전 시대인 1970년대의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들의 피부화장이 오크(oak) 계열의 파운데이션(foundation)을 다소 두껍고 과장되게 덧칠하여 인위적인 느낌이었던 것에 반해 1989년 수상자들은 브라운(brown)계열이나 페일 핑크(fale pink)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칠하여 부드럽고 밝은 피부 톤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미스코리아대회의 본선 무대 화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소 두꺼운 피부화장은 불가피하였으며, 이후 시대의 미스코리아들은 본인의 피부 톤에 맞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점차 변모하게 된다.

3.2 눈썹화장(Eyebrow make up)

영화<패왕별희> 장국영의 눈썹은 급변하는 시대상과 함께 미묘한 사랑이나 갈등 등의 심리상태를 표현하고자 전형적인 화살형의 눈썹 형태로 연출하였다. 눈썹 머리와 눈썹 산, 눈썹꼬리의 굽기가 크게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상승형의 눈썹으로서 야성적이고 동적(動的)인 이미지를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화살형 눈썹은 둥근 얼굴형인 배우 장국영 얼굴을 더욱 개성 있도록 부각하고 가름한 여성적인 얼굴형으로 보이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눈썹은 눈썹 길이를 최대한 짧게 그리는 것이 관건이다. 장국영의 눈썹 형태와 달리 1989년 미스코리아 진(眞) 당선자는 활동적이고 젊은 감각을 드러낼 수 있으며, 폭이 좁거나 긴 얼굴형에 어울리는 수평형의 직선적인 흑갈색 눈썹 형태를 하였다. 반면 선(善) 당선자는 아치(arch)형의 검정 눈썹을 연출하였다. 아치 형태의 눈썹은 이마가 비교적 넓은 얼굴형에 어울리며, 우아하고 매혹적인 여성미가 발산된다[20]. 이전 시대인 1970년대 미스코리아 출전자들이 가늘고 긴 아치형의 눈썹을

그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 반면 1980년대 들어서는 눈썹 솜이 많고 굵으면서 진한 표준형이나 직선 형태의 눈썹을 그려서 섹시(sexy)한 여성미와 건장미를 표출하였다.

3.3 아이라인 화장(Eye line make up)

<패왕별희> 주연배우 우희는 약 1cm 정도로 굉장히 과장된 아이 라인을 상승형으로 진하게 그리고 있다. 위, 아래의 아이라인은 눈썹꼬리 끝부분에서 서로 만나면서 가늘게 마무리함으로써 요염한 자세(姿態)를 자아낸다.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의 아이라인은 우희와는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무대 화장 특성상 다소 과장된 상, 하의 아이라인을 연출하였다. 하지만 우희처럼 과도하게 눈썹꼬리를 길게 빼지 않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인조의 속눈썹을 부착하고 마스카라(mascara)를 덧칠해서 눈매를 더욱 강조하였다.

3.4 눈 화장(Eye shadow make up)

<패왕별희> 우희는 다홍색의 아이 섀도우를 전혀 그라데이션(gradation) 하지 않으면서 눈두덩이 전체에 걸쳐 칠하였다. 아이 홀(eye hall)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서 아이 라인 끝부분까지 과장해서 컬러풀(colorful)한 색감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에 반해 1989년도 미스코리아 진(眞) 당선자는 연분홍색(pale pink)의 포인트 메이크업(point make up)과 하이라이트(highlight) 눈화장으로 마치 명이 든 것처럼 음영(陰影)을 극대화 시켰다. 또한 선(善) 당선자는 단일색상인 연지로 눈두덩이와 눈 아래를 폭넓게 눈화장하여 약간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이미지(image)를 연출하였다.

3.5 볼 화장(Cheek make up)

영화<패왕별희> 우희의 메이크업은 눈화장과 입술 화장에 포인트(point)를 주려는 의도로 인하여 볼 화장은 하지 않았다. 반면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은 무대 화장의 정식(定石)대로 눈화장과 동일 색상인 핑크나 오렌지 계열의 색상으로 광대를 타고 유선형(流線型)으로 내려오는 볼 화장을 하였다. 이를 통하면 관객석에서도 색감(色感)이 쉽게 식별되고 세련미와 입체감을 최대한 부각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3.6 입술 화장(Lip make up)

<패왕별희> 주연배우 우희는 아이 웨도우와 동일 색상인 다홍색으로 진하게 입술화장을 하였다. 선명한 스트레이트 커브(straight curve)로 입술 선(lip line)을 직선적으로 그려 이지적이고 역동적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그리고 직선의 입술 옆선과 90°의 입술 산, 가름하고 긴 아랫입술 연출은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은 1980년대 유행하던 메이크업 패턴대로 본인의 입술선에서 약 1.5mm가량 외곽으로 넓게 그리는 아웃 커브(out curve)로 입술화장을 하였다. 윗입술의 산과 산을 약간 벌여지도록 간격을 띄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랫입술은 도톰하며 둥글게 그려서 넓은 하악골(下顎骨)을 시각적으로 축소되어 보이면서 섹시하고 세련되며 볼륨 있는 입술로 도톰하게 표현하였다. 이는 미스코리아가 대회 출전 당시 무대 위에서 고른 치아를 보이며 활짝 웃는 모습을 가장 예쁘게 인식하는 추세 때문에 도톰한 아웃 커브 형태의 입술화장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1989년 당시 미스코리아는 입술 라인보다 색상의 강조를 통하여 매력을 발산하였는데, 밝은 레드 계열의 입술 색으로 다소 과장되고 화려하며 강렬한 멋을 어필하였다.



Woo-hee of the film <Farewell My Concubine>



1989 Miss Korea 1st place winner	1989 Miss Korea 1st place winner
----------------------------------	----------------------------------

source

<https://blog.naver.com/seocute0119/221295470837>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EB%AF%B8%EC%8A%A4%EC%BD%94%EB%A6%AC%EC%95%84+1989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61>

Fig. 4. Comparison to makeup characteristics

4. 결론

영화<패왕별희(霸王別姬)>의 주연배우인 장국영과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의 메이크업에 관하여 비교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패왕별희> 속의 우희는 백색 톤으로 피부화장을 한 반면 1989년 미스코리아 진(眞)과 선(善) 당선자들은 브라운(brown)계열이나 페일 핑크계열의 파운데이션으로 다소 두껍게 칠하여 부드럽고 밝은 피부 톤을 연출하였다.

둘째, 영화<패왕별희> 우희는 눈썹 머리, 눈썹 산, 눈썹꼬리 등이 거의 동일 굵기로 상승형 눈썹을 연출하여 여성적이며 동적(動的)인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반면 1989년 미스코리아 진(眞) 당선자는 긴 얼굴형에 어울리는 흑갈색의 직선적인 눈썹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선(善) 당선자는 비교적 이마가 넓은 얼굴형에 어울리는 아치(arch)형의 검정 눈썹으로 그려 우아하고 매혹적인 여성미를 표출하였다.

셋째, <패왕별희> 우희는 매우 과장된 상승형의 아이 라인을 진하게 그리다가 눈썹꼬리 끝에서 가늘게 모이도록 마무리하여 요염한 자태(姿態)를 자아내었으며,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은 무대 화장에 부합되도록 다소 과장되게 아이라인을 그린 후, 인조 속눈썹을 부착하고 마스크라(mascara)를 덧칠하여 눈매를 더욱 강조하였다.

넷째, <패왕별희> 우희는 아이 홀(eye hall)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서 다홍색의 아이 웨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걸쳐 눈 화장하였다. 이에 반해 1989년도 미스코리아 진 당선자는 연분홍색으로 하이лай트 눈화장하여 음영을 극대화 시켰으며, 선 당선자는 연지색으로 눈두덩이와 눈 아래를 폭넓게 눈화장하였다.

다섯째, <패왕별희>의 우희는 일체의 볼 화장을

하지 않은 반면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은 핑크나 오렌지(orange) 계열의 색상으로 유선형(流線型) 볼 화장을 하여 입체감을 최대로 부각하였다.

여섯째, 우회는 선명한 스트레이트 커브 형태의 다홍색 입술화장을 진하게 해서 이지적인 이미지를 표출한 반면, 1989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은 윗입술 산들을 약간 벌여지도록 간격을 띄우고 아랫입술은 도톰하게 그린 아웃 커브 형태로 입술화장을 하였다. 또한 입술 라인보다 색(色)의 강조를 통해 매력을 발산하였는데, 특히 화려하며 강렬한 밝은 레드 계열의 입술 색상을 선호하였다.

더욱 활성화된 메이크업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면 다양한 메이크업 패턴이나 아이템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일환으로 영화<패왕별희>의 우회와 1989년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의 메이크업에 대하여 미용학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메이크업의 패턴 및 아이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 시장에서 공격적 마케팅 전략 구축을 통해 뷰티 시장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발전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한다.

REFERENCES

[1] H. K. Kim & M. H. Park. (2014). Effects of Psychosocial Consciousnes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males workers in 20s and 30s Applied. *Journal of Digital Design Studies, 14(4)*, 319-327

[2] H. K. Kim. (2012).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Male's Make-up. *Journal of The Digital Convergence, 10(11)*, 635-640
<http://dx.doi.org/10.14400/JDPM.2012.10.11.635>

[3] H. K. Kim. (2013). *Effects of Psychosocial Consciousnes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males workers in 20s and 30s*. 25-27.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4] J. S. Oh. & J. S. Park. (2019). For white hair cover for chemical hair dye treated hair cosmetic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6)*, 281-286.

<https://doi.org/10.15207/JKCS.2019.10.6.281>

[5] J. S. Park & H. J. Kwon. (2017). Perception about makeup influence on man's makeup and their succ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231-237.
<https://doi.org/10.15207/JKCS.2017.8.4.231>

[6] S. H. Lee. (2012). *A Study on the Men's Make-Up Recognition According Men's Appearance Management Consciousness and Behavior*. Master of thesis, Dong duk Women's University. Seoul

[7] S. H. Yim. (2012). *A Study on Attitudes toward Man's Appearance Management and Cosmetics Purchasing Behavior*. Master of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8] M. J. Kwon. & G. Baek. (2014). Costumes in Farewell My Concubine. *Journal of China Studies, 0(16)*, 139-170

[9] M. N. Park. (2018). *High school through the movie <Farewell My Concubine> Chinese culture education teaching plan*. Master of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DDC 412.07 22

[10] M. K. Cha. (2005). Symbolic aesthetics, Beijing opera. Seoul : Shin seo won

[11] J. Y. Baik. (2007). *Historicity and Currency of Performance Art through the Movie, "Bawnagbieji"*. Master of thesis, Myong jj University. Seoul

[12] M. K. Cha. (2002). Performing arts of Peking Opera as seen in the movie Star King. Seoul : Chinese Culture Research

[13] Y. O. Song. (2005). *The Study of Chen Kai Ge's Literary Movies*. Master of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 三千里. (1931). Seoul : 三千里

[15] B. H. Lee. (2010). *Influences of Miss Korea on Women's Aesthetic Consciousness*. Doctoral dissertation. Seo kyung University, Seoul.

[16] K. O. Jeon. (2005). Korean Women's Culture 2.

Seoul :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Press

- [17] H. C. Yu. (1967). Miss Korea-In search of Korean feminine beauty. Seoul : sam jung dang
- [18] Han kook Ilbo Future Strategy Office. (2016). MISS KOREA 60th Anniversary Collection. Seoul : Han kook Ilbo
- [19] H. J. Jung. & J. A. Joe. & K. O. Jang. & S. N. & U. J. Yoo. & J. S. Park. (2004). Beauty Culture History. Seoul : Gwang mun gak
- [20] H. J. Lee. (2005). The Make-up. Seoul : Book Publishing Ye lim

박장순(Jang-Siin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숭실대학교 뷰티산업학과(공학사)
- 2013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미용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교수

· 관심 분야 : 헤어미용학, 미용 생리학, 미용경영
· E-Mail : anima2929@hanmail.net